



허정림 | 환경공학박사/  
한국환경교육학회 총무이사  
(jr529@naver.com)

## 하천이야기 6

# 그리움이 흐르는 강

지난 강렬한 태양빛에 이글거리며 성난 파도를 토해내는 바다가 여름이라면 아마도 강은 초가을만 같다. 그것은 강의 고요함이 주는 고적함 때문에 역동적인 여름보다는 가을의 이미지와 어울려서 인 듯하다. 그래서인지 가을의 문턱에 서서 문득 두 해전에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아버지 생각이 그리움으로 밀려온다.

나의 아버지는 참으로 고된 세월을 사셨지만 언제나 내겐 너무도 넉넉하고 든든한 자리로 남아계신다. 어릴 적 기억의 저편에 계신 아버지는 그랬다. 따사로운 햇살처럼 온화하신 미소로 늘 자식과 아내를 품에 안으셨던 아버지..... 그러나 어쩌면 정작 당신 자신은 어디에도 의지할 곳 없이 외로웠을 것 같은 아버지..... 비로소 내가 나이가 들고 나서 새삼스레 아버지를 생각해 보게 된 후에야 내 아버지가 늙어 살아계실 때 모습을 면벌치에서 바라보았던 그 아버지를 기억해 낼 수 있다. 이제 내 나이 반세기를 살아 보니 아버지가 한 인간으로서 짊어지고 가셨을 고뇌와 인고의 세월이 느껴진다. 오늘 나는 아버지의 인생 속에 넘나들었던 세월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나의 아버지의 인생은 참으로 역동의 세월을 겪던 한반도 역사 속의 한장을 보는 듯하다. 두만강 근처의 작은 마을인 신의주 옆의 구성군 사기면에서 5남매 중의 장남으로 태어나신

아버지는 우리나라 국토의 희을 그은 두만강의 기상을 받으셨나 보다. 어린 나이셨지만 독립운동을 하시는 할아버지를 따라 두만강을 건너 중국 만주별관을 무대로 지하 독립 운동가의 일원으로 활동하셨으니 말이다. 그 나이의 아버지에게 있어 두만강은 고향의 그리움을 불러 오는 향수 어린 강이기에 앞서 당신의 인생에 있어 빼저린 시대적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아프게 건넌 시련의 강이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지하 독립 운동가 집안의 장남으로 가족 모두 안정된 생활을 뒤로 하고 혼난한 독립투사 가족의 인생여정을 두만강을 건너면서 시작하였다. 당시 할아버지께서는 하얼빈에 있는 세탁소로 위장이주를 하신 후 본격적으로 지하 독립 운동을 하셨다고 한다. 이때 주로 아버지가 맡은 임무는 투옥된 독립투사의 비밀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물건을 공수하는 일을 하셨다고 한다. 세탁소를 하는 공적인 신분을 이용할 수 있음과 동시에 어린 나이이기에 신분 위장과 의심을 피하기 좋았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주로 심부름을 하셨던 것이다.

하루는 신문지에 중요한 정보와 더불어 면도칼과 같은 탈옥을 위한 용품을 전달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시기도 하셨는데, 그 때 일본군 순사와 맞닥뜨렸어도 의연히 대처하여 자신과 가족과 많은 독립투사를 위기에서 살리셨다고 한다. 이때



어린나이의 아버지가 보여주신 기지와 용기는 아마도 춥고 세찬 두만강을 건넜던 강인함에서 왔으리라.

그후 결국 독립운동의 행적이 밝각되신 할아버지는 모진 고문 끝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시고 다시 절절하고 아린 심정으로 두만강을 건너 고향으로 돌아 오셨지만 이미 반신불수의 몸이 되셨고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어린 소년가장이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성실하게 자신이 쳐한 운명을 탓하지 않은 채 열심히 학업과 일을 병행하시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무거운 삶을 독립투사의 자손이라는 자부심과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으로 결코 험난한 현실을 고행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가슴 한 구석은 어린 나아이에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정처 없이 두만강의 시린 겨울바람만큼이나 아리게 훌려갔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의 마음속은 가족에게도 말 못하는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마음의 땅이 되어 늘 울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장남으로서 불구가 된 아버지와 어린 동생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새엄마의 구박 속에서도 의연함과 투지로 견디셨다. 늘 가족의 희망임을 알기에 그리 할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그의 앞에 펼쳐진 역사적인 사건은 그의 운명을 또 한번 바꾸었다. 바로 전쟁의 발발이었다.

격동의 시대적 배경이 전쟁의 조짐이 보이자 할아버지께서는 장남인 아버지를 불러 일단 세월이 조용해질 때까지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하셨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곧 안정된 세상이 될 것인니까 그때 다시 고향에서 만나자면서 가족을 뒤로

하고 떠나기 싫다하시던 장남의 등을 떠 미셨다. 결국 아버지는 대동강을 넘고 임진강을 건너 한강으로 남하하셨다.

혈혈단신 멀어져 가는 가족과 고향을 뒤로하고 건넌 대동강은 영원히 만날 수 없던 먼 이별의 강이었다. 결국 잠시 이별로 여겼던 그날을 뒤로하고 임진강을 건너야 했던 아버지는 6.25 참전용사로 자원입대하여 전쟁의 소용돌이를 몸으로 맞서 대항하셨다. 오로지 통일되어 두만강변 작은 마을에 사는 당신의 가족을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자신의 온 몸을 바쳐 조국의 전선을 지켰다. 그러나 그의 바람은 수차례의 전투로 한강을 넘나들면서 까지도 굳센 투지로 대항했지만 결국 그 바람은 두만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곧 돌아오마던 약속도, 다시 만나자던 맹세도 강물처럼 흘러 세월 속에 묻혀버렸다.

결국 아버지에게 있어 전쟁은 한강을 넘어 저 멀리 지리산 뺨치산 정벌에 투입되어 섬진강에 이른다. 두만강에서 섬진강 까지의 긴 여정만큼이나 멀고도 고된 인생의 여정이 그의 앞에 운명처럼 펼쳐지고 있었다. 그때 아버지의 나이가 이미 서른을 훌쩍 넘어 선 때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항상 고향의 두만강을 다시 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져 버리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을 사랑하던 여인을 만나야 하였기에 반드시 고향에 가리라고 다짐하셨다고 한다. 그렇지만 야속하게도 강물을 흘어지면서도 흘러흘러 어디로 가서든 바다에서 만나 하나로 합쳐지지만 결코 아버지의 강은 고향에 다 다르지 못 했다.

섬진강은 아버지에게 있어 두만강만큼이나 인생을 갈라놓은 의미 있는 향수어린 추억의 강이다. 지리산 자락을 잡고 섬진강의 강가를 휘어 감고 있는 산수유가 흐드러지게 피는 수채화처럼 소담스런 구례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 인생에 있어 두 번째 여자인 나의 어머니를 만나 다시는 없을 것 같았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셨으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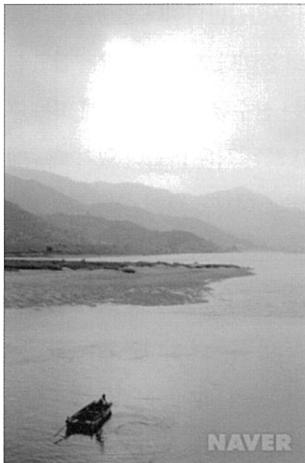
지금도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를 사랑했을까? 하는 생각을 부질없이 해 보기도 한다. 우직한 성품의 선비와 같은 올곧은 아버지를 생각하면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었다기보다는 실낱 같은 희망이 아니었을까? 어쩌면 고향의 두만강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의 끝에서 느끼는 막막한 외로움이 두 번째 사랑을 선택한 것이었으리라.

과연 고향 두만강변에 첫사랑을 두고 오신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지리산 자리의 섬진강변 처녀가 그 마음을 비집고 들어 왔을 때, 어떤 마음자리를 내어 놓으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사랑보다는 먹먹한 자신의 사랑에 대한, 다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 온 아버지의 인생에서 어쩌면 생명수와 같았을 운명을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인지 가슴보다 머리로 한 결혼이 아닐까? 하는 부질없는 생각을 해보지만 늘 한결같이 자애로웠던 아버지의 사랑은 어쩌면 애절하고 안타까운 아버지의 심정으로 다가와 나의 마음도 아리게 한다.

그러나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정말이지 변함없이 나이 어린 신부인 나의 어머니를 자애롭고 따스하게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것 같다. 그의 마음 속에 어떤 그리움이 강처럼 흘러 마음 한 구석을 헤집어 놓고 아프게 했을런지는 몰라도 적어도 결코 어머니가 눈치 채거나 아프게 않는 넉넉한 사랑을 주셨다. 비단처럼 격정적이진 않으셨지만 강처럼 온유하고 늘 한 결같이 흐르는 사랑을 그렇게 주시고 가셨다. 그래서인지 55년 넘은 세월을 함께 하시고 먼저 떠나신 아버지를 지금도 어머니는 그리워할 수 있는 것이리라.

아버지는 그렇게 세월의 강을 건너 이제 당신 또한 추억 속의 강물이 되어 나의 마음 속 강물이 되어 흐른다. 우리는 인생의 강을 따라 흐르고 머물고 또 흘러서 어디로 가는 걸까?



NAVER

강물도 발자취가 있다면  
아마도 우리네 인생의 강  
또한 그 흔적을 남기고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아  
흐르지 않을까?

누구에게나 사랑의 강  
은 흐른다. 자신을 기억  
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강물처럼 유유히 흐를  
수 있다면 이 세상을 뒤

로 하고 흘연히 떠날 때, 그래도 잘 살았구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이름으로 남는다는 것은 누구의 마음 속에 그리움으로 흘러넘칠 수 있다는 것이다. 강물이 되어 가슴을 촉촉이 적셔 주어 한 사람의 목마른 외로움을 적셔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고즈넉한 깊은 새벽의 어둠 속에서 나의 아버지를 불러 본다. 내 가슴에 마음의 문을 열고 유유하게 흐르고 있는 그리움의 강물위에 아버지의 이름을 실은 뜻단배를 띠워 본다.

“아버지.....”

그 어떤 미사여구를 들먹이지 않아도 어느새 아버지라는 한 미디에 내 가슴 속에 뜨겁게 흐르고 있는 강물은 요동치고 눈시울은 붉은 노을처럼 시려운다.

“보고 싶어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에 목이 메고 눈에는 이미 새벽강가의 물안개처럼 눈물이 피어오른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할 수 있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버지만큼은 아니어도 아버지처럼 인고의 세월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이 늘 예정되지 않고 뜻대로되어 주지 않아도 그저 덤덤히 나의 길을 갈 수 있는 강처럼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넘치는 그리움과 사랑의 강물을 부족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 가슴 속 언제나 사랑이 넘쳐나는 마음의 강물이 언제나 흘렸으면 좋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승과 저승의 멀고도 가까운 곳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강을 건너신 나의 아버지는 이 세상 하나님밖에 없는 당신 딸의 마음 속에서 언제나 한결같이 그리움의 강물로 흐르고 있다. 내 가슴 속 이 그리움의 강물은 또다시 흘러 넘쳐 언젠가 나의 딸에게도 나를 향한 그리움이 강물처럼 흐르겠지..... 나 죽어 내 딸아이 마음 속 강물 되어 그렇게 흐르게 될 쯤이나, 지금 나의 아버지의 그리운 강물은 내 마음 속에 머물러 잔잔한 대지를 적셔주는 단비처럼 내 아이의 아이에게 까지 여울져 흘러가리라. 사랑의 이름으로 붙여진 그리움으로.....